

설교 / 불통하는 가정이 아닌 소통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행복한 가정의 기준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가족 간의 대화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갈등이 생겨도, 문제가 생겨도 대화만 된다면 그 문제는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가정은 보통 대화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불통 가정은 불화가 가득하고, 소통 가정에는 형통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가 잘 될 때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잘 대화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 위해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뒷'담화가 아닌 '윗'담화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열심히 예수님을 섬길 준비하는 가운데 마리아는 일을 돕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마르다의 마음은 불편하고 속상했을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호소하며, 그 마음을 알아주길 원합니다. 이를 우리는 '뒷담화'라고 합니다. 잠시는 위로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참 평화를 줄 수는 없습니다. 마르다는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며 그 상처들을 아웁니다. 이것이 '윗담화'이며 문제 해결의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들, 때론 추석에 만난 가족들과 말하기 어려운 갈등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삶에서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행동하나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뒷담화'를 멈추고 하나님과 '윗담화'를 시작하십시오.

2. '상황'의 변화가 아닌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르다는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황'이 아닌 마르다의 '생각'을 바꾸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종종 기도로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간구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상황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변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대화는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묵상해야 합니다. 상황을 보는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추석,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대화로 형통한 삶을 시작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울산원돌교회

2024

추석 가정예배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이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

신앙고백사도신경..... 다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430장)..... 다같이

1.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2.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 하는 대로 주와같이 가겠네
4. 옛 선지자 예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 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걸겠네

[후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 도가족중

성경봉독누가복음 10:38-42가족중

- 38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 39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 40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 41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 42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나눔“불통하는 가정이 아닌 소통하는 가정” 가족중

추석 가정예배 순서

기 도 다같이

찬 송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찬송가 559장)..... 다같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제목 나눔 다같이

(감사한 내용, 기도제목을 돌아가면서 함께 나눔시다.)

축복송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다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